“고고한 대성인의 길 걷는 자부심 갖자”

천태종 관문사, 주지 덕수 스님 진산법회

1월 5일 경내 옥불보전서 봉행
부주지 수산스님 취임식도 열려
덕수 스님, 대중에 정진 당부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월 5일 열린 주지 진산법회에서 덕수 스님이 축하 화환을 받고 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가 덕수 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의 주지 진산법회와 부주지 수산 스님(천태종 총무원 기획실장)의 진산법회를 함께 봉행했다. 덕수 스님은 1월 2일 구인사에서 도용 종정예하로부터 관문사 주지 임명장을 받아 연임하게 됐고, 수산 스님은 새로 취임했다.

서울 관문사는 1월 5일 경내 4층 옥불보전에서 ‘14대 주지 덕수 스님, 부주지 수산 스님 진산법회 및 1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서설이 내린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는 관문사 총무 도각 스님, 김형동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사욱진 천태종중앙청년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 이현숙 서초구의회 부의장, 김성주·이형준·이은경 서초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지 덕수 스님은 취임사를 겸한 인사말에서 부주지 수산 스님과의 인연담을 소개한 후 “우리는 고고한 대성인의 길을 간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새해에는 ‘일심이 상(常)청정하라’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 다 버리고 간다’는 대조사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자”고 당부한 후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것은 중생이 온갖 욕망에 빠져 미혹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보살님들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길 축원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관문사의 모든 일에 앞장서 주신 신도회 간부들과 봉사자 등 신도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모두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기도하자”고 추모하면서 “우리 모두 구인사에 처음 인연을 맺을 때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하고 힘차게 수행 정진하자”고 신도들의 수행을 강조했다.

앞서 부주지 수산 스님은 취임사를 겸한 법문에서 “바깥세상에 순백의 눈이 가득하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의 주지 취임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다. 흰 눈처럼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당부일 것이다”며 서설을 반겼다.

스님은 또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으로 인한 집착 때문이다. 집착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우리가 밤새워 기도하는 ‘관세음보살’ 염불은 빗자루와 같다. 집착을 쓸어내 자신의 몸을 맑게 하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기도와 함께 이 훌륭한 수행법을 널리 전하는 포교사가 되자”고 전법을 당부했다.

김형동 중앙신도회장은 축사에서 “상서로운 서설 속에 봉행하는 주지 덕수 스님과 부주지 수산 스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중앙신도회장을 맡은 지 두 돌이 되는데, 앞으로도 관문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가 정치인인데 요즘 욕을 많이 먹는다. 신도님들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잘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윤후 승장 UCC 대회 시상…대상에 임한철 불자

1월 5일 호국선봉사서 시상식
경연대회서 국군장병 3명 입상
지작사 상장·포상휴가증 수여
“호국불교 전통 계기로 삼겠다”


용인 호국선봉사는 1월 5일 경내 법당에서 ‘김윤후 승장 UCC 경연대회 시상상식’을 열었다.

고려시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한 김윤후 승장(僧將)의 업적을 기리는 UCC 경연대회의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상에는 임한철 불자가 선정됐다.

용인 호국선봉사(주지 정행 법사)가 1월 5일 경내 법당에서 ‘김윤후 승장 UCC 경연대회 시상상식’을 열었다. 이번 경연대회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가 후원했으며, 1232년 처인성에서 몽골군 장수 ‘살리타이’를 물리친 김윤후 승장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호국선봉사 주지 정행 법사는 “호국불교를 떠올리면 조선시대 인물들을 주로 생각하지만, 원광 법사부터 김윤후 승장까지,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호국인물이 있었다”며 “호국인물들을 한분 한분 연구하고 조명하다 보면,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중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연대회 대상의 영예는 충주지역의 임한철 불자가 거머쥤다. 임 불자는 “이번 경연대회 참가를 통해 김윤후 승장에 대해 더 생각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됐다”며 “호국선봉사는 김윤후 승장의 다례재를 매년 봉행해 김윤후 승장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사찰이다. 앞으로 충주에서도 김윤후 승장을 알리는 데 공헌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연대회에는 국군장병들도 참여·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경연대회 장병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민성(지상작전사령부 군사경찰단) 불자는 “매주 법회에 참석하며 부처님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이번에 UCC 경연대회에 참석했다”면서 “호국불교와 스님들의 역할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회에 입상한 장병 3명에게는 지상작전사령관 상장과 포상휴가증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군종교구장상을 수상한 장병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전달됐다.

또한 용인특례시장상을 수상한 이현성(용인 용신중) 학생은 이번 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처인성을 직접 방문하고 김윤후 승장 관련 역내 행사들을 조사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학생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김윤후 승장의 법명을 찾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민재 기자

일붕선교종 ‘2025 신년하례법회’ 봉행

1월 8일 서울 일붕선원서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불기2569년 을사년을 맞아 1월 8일 서울 일붕선원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는 종정 대륜 스님과 총무원장 혜일 스님의 헌향 및 헌화로 시작되었다. 이어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신년하례가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부처님께 3배의 예를 올리고 신년의 각오를 다졌다.

혜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 스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전국적으로 날씨가 좋지 않아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참해 주신 모든 스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종정 대륜 스님은 신년법문을 통해 “좋은 인연에 기대어 배우고, 이를 통해 널리 이익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어리석음을 벗어나 깨달음을 얻으려면 좋은 인연을 가까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해야 한다”고 설했다.

노덕현 기자

정읍 내장사, 자비나눔성금 기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가구 등에



정읍 내장사(주지 대원 스님)가 정읍지역 소외이웃을 위해 자비의 성금과 백미를 기탁했다.

내장사 총도감 무성 스님은 1월 3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이학수 정읍시장에 자비의성금 500만원과 자비의쌀 1000kg(20kg 5포대)를 전달했다.〈사진〉

전달한 백미는 정읍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 가구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무성 스님은 “작은 정성들이 하나하나 모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나눔이 소외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해 따듯한 온정을 전해준 내장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이런 기부 문화가 지역사회 복지와 삶의 질을 더욱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안사암聯, 제주항공 합동분양소 참배

1월 3일 천안시청 3층서



천안불교사암연합회는 1월 3일 천안시청 3층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양소를 참배하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각원사 주지 지산 대원 스님, 연합회 부회장 덕흥사 주지 선영 스님, 약천사 인봉 스님, 천불사 주지 인경 스님, 태학사 주지 법연 스님(천안사암연합회 총무), 무애사 주지 광현 스님, 성월사 주지 고우 스님을 비롯해 태국사찰 분다라마사 팟차랏 스님, 베트남 사찰 원오사 주지 틧뜨엉탄 스님과 연합회 신도들이 동참했다.

태학사 주지 법연 스님은 “이를 계기로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안정적인 국가로 거듭 나길 바란다”며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출강 및 통신 2025학년도 제34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전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4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 02)733-1959 720-1836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5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

봉 **천안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취임식 및 만수사 주지 진산식** 행

천안불교사암연합회 신임회장으로 만수사 주지스님께서 취임하시어,
연합회장 취임 및 주지 진산식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 뜻깊은 법석에 동참하시어 신임 회장 스님의 새 원력을 함께 축하해 주시고,
천안 지역 불교 발전과 화합을 위한 인연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회에는 지역 불교 지도자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부디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무량한 공덕을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일시 : 2025년 1월 18일 (토) 오전 11시
◈ 장소 : 천안시 동남구 용곡1길 54 만수사
◈ 문의 : 041-552-9256

천안불교사암 연합회

순번	사찰명	주지	소임
01	각원사	대원	원로의장
02	광덕사	철응	원로의원
03	약천사	인봉	원로의원
04	천불사	인경	원로의원
05	연대선원	지현	원로의원
06	용화사	지용	원로의원
07	만수사	도언	회 장
08	정화사	경천	부회장
09	도광사	도공	부회장

순번	사찰명	주지	소임
10	쌍용선원	자장	부회장
11	고불사	능엄	부회장
12	무애사	광현	부회장
13	광덕사	혜광	감 사
14	덕흥사	선영	교 무
15	안양암	탄형	포 교
16	극락정사	일양	재 무
17	태학사	법연	총 무

천안불교사암연합회 · 도언 합장